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동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빠르게 가고 있다. 조성사업 추진주체와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 강화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송재구 제2기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이 전격 해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송 위원장의 퇴진은 극히 이해적이다. 송 위원장은 위촉된 지 불과 6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정부의 전화통보를 받고 해촉됐다고 한다. 그동안 청와대까지 나서 송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고 하니 그 배경이 궁금하다.

6개월만에 위원장 해촉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이 어떤 자리인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조성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급 예우를 받고 임기 2년인 보정제이다. 위원회에는 교육부총리, 행정부총리를 비롯 13개 부처 장관 등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원 15명 등 위원 30명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사금' 위원장, '들러리' 조성위

이 위촉한 위원장을 위법행위도 없는데 6개월만에 해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상대로 '진실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의 공식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해촉 배경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촉과정과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해보면 추론은 가능하다. 우선 위촉과정의 모양새가 이상했다. 송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제2기 조성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6개월동안 위촉장을 받지 못했다.

부와의 갈등이었다고 한다.

송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에도 이영진 당시 문화중심도시추진본부장의 교체와 조성위에 별도 사무국 설치, 랜드마크 기능의 보완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며 문광부와 대립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확정하기 보다는 다음 대통령이 흔쾌히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며 "차기정권 이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대에 처음이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문광부가 독선적, 이기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위 위상 강화해야

조직의 수장인 조성위원장이 앞장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바람직할 수는 없다. 위원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역할의 기본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화와 타협 없이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선 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설치한 의미가 없다.

정부는 조성위원회의 위상과 랜드마크 기능 강화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송 위원장의 발언을 개인 차원의 '변명'이나 '합리화' 정도로 치부해선 안된다. 오히려 '손소리'로 받아들여 광주문화수도를 그랜드 디자인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지금처럼 '중앙의 논리'만 고집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문화수도는 허울뿐인 '겉대기'에 그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들도 문화수도가 축소, 왜곡되거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 감시하고 전력을 모택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장〉 dykim@kwangju.co.kr

시설

지자체 '눈덩이' 복지예산 차등지원하라

정부가 24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공포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지출은 중앙정부가 일정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이른바 매칭펀드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연간 400억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지방세 3천193억원 가운데 무려 96.2%인 3천73억원을 복지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부담액 400억원이 추가될 경우 복지예산 예산이 지방세 수입을 초과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일선 시·군의 형편은 더욱 어렵다. 지방세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매년 수 십억원을 추가부담한다면 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맞을 수 있다.

신규사업은 손도 못 대는 것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마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지자체의 복지비 비중과 이에 따른 지역간 재정격차가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인 전남지역 지자체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관련 재정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복지예산의 국고지원을 차등지원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조경교부금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교부세 배분기준을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과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복지예산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의협 불법로비설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24일 회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의사협회가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상대로 불법로비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의단체의 불법로비 개연성은 있었지만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장 회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시·도대의원대회에서 밝힌 불법로비 사태는 적나라하다. 장 회장은 "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2명 등 국회의원 3명에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쓰고 있다"면서 "연말정산 때문에 고생하는 모 의원측에게는 1천만원을 현찰로 줬다"고 털어놓았다. 또 "복지부 사람들에게 팔뚝 잡대하고 거머비를 집어주고 다 했는데 그걸 먹고 판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직접 대의원을 상대로 의협의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인 만큼 거짓은 아닐 것이나 장 회장은 사후 해명에서도 "이의단

체 입장에서 (정치인 등의 부탁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로비가 관행임을 시사했다. 의사협회도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보다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며 로비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의단체들이 이해가 걸린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검은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이의단체와 정치권, 정부 부처간 만류가 없을 수 있다. 대형 '게이트'마다 로비설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정치권은 국회 차원에서 로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관행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선자금과 공천금 등 불법자금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 정치권이 자정능력을 계율리하면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류동훈



문화도시 사업이 조성위원장과 추진 기획단장이 교체되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광주는 참 시끄러웠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 말만들어도 괴해진다는 문화피로증이 휩싸이고 있다. 부자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서로 싸우다 집안이 망하고, 가난한 집 자식들은 서로 힘을 합쳐 집안을 일으킨다고 하더니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니 광주다움을 버리고, 먹이를 찾아 물러드는 하이어나 처럼 다투다 벌써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간다. '조국이 그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보다,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

해주는 것도 멋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개발하여 유머가 넘치는 대답문이 되어도 인기가 있을 것이다. 회의 시간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회의문화를 익히는 것도 신사적이다. 아이들과 주말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식구들이 함께 먹을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인이 되어보면 잔잔한 감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문화창조자가 되어 할 일은 앞으로 많은데 왜 우리는 정부가 해주는 일에 사색결단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는가?

앞으로 취임할 문화도시추진단장과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문화도시

라'는 글귀가 부끄럽게 한다. 잔치를 준비할 때 서로 할 일을 찾아서 맡아달라 정 나누는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에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생각하는 여유가 절실하다. 5.18 정신의 부활은 정부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는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화도시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노래방에서 노래 한국을 하더라도 문화적 정취가 풍기는 좋은 노래를 골라 열심히 연습해서 주변 사람을 즐겁게

조성위원장은 시민들을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면 좋겠다. 토론이나 강연회 때 웃겨주는 신바람 홍보대사를 보고 싶다. 심각한 논쟁을 이제 절고 흥겨움이 넘치는 축제를 위해 틀러도 괜찮은 느슨한 상상을 만들어보자. 토론회 때 청중을 웃길 자신이 없는 발표자는 아예 토론장에 나가질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청객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소외시키는 주최측과 사회자, 발표자들에게는 벌금을 물려야 한다. 나의 노래, 나의 시, 나의 그림을 만들어서 문화 상품으로 만들고 나누며 격려하는 소박한 문화도시를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광주를 너무 사랑한다. <광주전남행복발전사무처장 2006년 1월 수성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바편 노선 알리는 버스정류장 안내판 개선하라

광주시가 지난 2월 8일 시내 버스 노선 조정을 시행한 지 두달이 넘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어느정도 정착한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 버스노선 조정으로 바편 정류장 안내판 중에는 버스 진행 방향이 잘못 적혀 있는 곳이 있어 주민 등의 지적으로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종이 테이프를 수정한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색상이 바뀌거나 훼손되는 가 하면 찢겨져 버린 경우도 많다. 또 일부 안내게시판은 보기 흉할 정도로 낙서가 심하다. 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되지만 행정당국의 관심도 필요한 것 같다.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는다. 광주시가 적극 나서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한다. <▲박광·광주시 서구 처평동

기고

이치백



오현섭 여수시장님께. 귀체만안(貴體萬安)하심을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수시가 추진하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기 기필코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지난달 3월에 여수의 거문도에 다녀 온 일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1906년 6월, 전북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선생과 돈헌(濬軒) 임병찬(林炳燾)선생이 일인인 '병오의창(丙午儀창)' 101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더구나 지난 1996년에는 선생이 그곳에서 순국하신지 90주년을 맞아, 여수시에서 선생의 순국비를 세웠으니, 돈헌 선생의 향리사람인 본인은 진정 크게 반갑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여수시당국과 거문도 유지들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시장님께 꼭 한마디 말을 해야 할 사연이 있어 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국비의 앞면에 새겨져 있는 '大韓獨立義軍府 兵馬都總長'이라

거문도 임병찬 의사 순국비 바로잡았으면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돈헌선생은 1914년 고종 황제의 밀칙을 받고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려다 실패하여 결국 그 일로 거문도에 유배되어 2년간의 억류생활을 하던 중, 1916년 6월, 그 곳에서 순국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선생이 유배생활을 하던 중 집필한 '거문도 일기'를 보면, 그곳 거문도에서 해은(海隱) 원세화(元世學)선생을 비롯한 여러 유지들이 끝까지 따뜻한 보살펴 주었다는 것을 읽을 때는 실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왜경의 엄한 감시 속에서도 그토록 살방한 항일의병장을 보살폈다는 것은 실로 의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문도의 따뜻한 인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는 직함과 '濬軒 林炳燾 義士'라는 이름에 작호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돈헌 이병찬선생의 고종황제 밀칙에 의한 공식직함은 '大韓獨立義軍府全羅北道巡撫大將'으로 되어 있는데 단테 없는 '병마도총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름에서도 '賁'자가 '贛'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 없는 실수라고 믿습니다. 이에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같이 작호가 있으니 가능하면 학계의 자문을 받아 碑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도 항상 행복의 웃음 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전북 향토문화연구회 회장)>

항공사 승무원의 세심한 장애인 배려 감동적

장애인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의 서비스에 비해 항공사 직원들이 더 친절하고 고맙다는 것을 느낀 적이 많을 것이다. 지난 주말 광주에 갔다가 시각 장애가 있는 친척이 고향 제주도에 가고 싶다 하길래 함께 서울로 올라다가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이륙 전에 승무원이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내 동행인이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난 뒤 도움을 요청하는 벨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부터 안전벨트와 산소호흡기 사용법, 구명복 착용법, 장애인이

좌석에서 비상구로 탈출하는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손을 잡고 친절하게 알려줬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시각 장애인의 입장에서 직접 몸으로 안내한 승무원은 처음이었다. 직업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승무원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으면 한다. <▲박종삼·목포시 동명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한석봉은 어려서부터 붓글씨를 익혔는데,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붓과 종이를 살 수 없어 향이리 위에 물을 찍어 글씨 연습을 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우리네 서에서 추사와 쌍벽을 이루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엄한 교육 덕이다. 떡장수 일로 뒷바라지하던 어머니가 공부를 완성했다고 돌아온 아들에게 어둠 속에서 떡팔기와

다. '닭을 키우더라도 선비정신을 잃지 마라' '근본을 알고 학문에 정진하라' 등 그의 서한에는 자식이 제 구실을 하며 살 수 있는 자양분이 듬뿍 들어 있다. 최근 구자차 부모들의 3분의 2 이상이 자녀의 구직활동에 크게 개입하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한 취업포털의 조사결과가 발표했다. 내용별로는 '부모 권위 행사 대비'가 42.3%로 가장 많았고, '부모

헬리콥터 부모



와 상의'(31.9%), '부모 회사 지정'(19.9%), '합격해도 부모 반대로 포기'(10.9%) 등의 순이었다. 헬리콥터 부모라 자녀 주변을 맴돌면서 모든 것을 대신해줘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드는 부모를 뜻한다. 취업이 어렵다고 맞는 자리에서 항상 글쓰는 일을 도맡아 외국에까지 이름을 떨쳤다. 맹모삼천지교를 들먹일 것도 없이 옛 사람들의 자식 교육이 없었던 것은 한 석봉의 모친뿐만이 아니다. 신사임당의 엄한 교육에 율곡 이이같은 대학자가 태어났고, 정약용도 비록 유배의 몸이긴 했으나 편지로 엄격한 교육을 시켰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